

미국-이라크 戰이 한국 및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미국-이라크 전의 향방과 세계경제

-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후세인 제거의지를 표명해왔던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미·영 연합군을 주축으로 대 이라크 전을 개시했음
 -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제 테러집단에 대한 응징이 전쟁의 명분임

· 연합군과 전쟁 반대국들의 이해차이는 석유이권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후세인 정부는 '91 이후 프랑스(마즈눈·빈우말 유전), 러시아(웨스트쿠르나 유전), 중국(아하다부 유전) 등의 기업들과 380억 달러 상당의 유전개발을 체결한 상태임에 비해, 미·영은 걸프전 이후 對이라크 경제제재 조치로 그 동안 석유이권을 확보하지 못했음

-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경제국면에 따라 다름
 - 그외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전쟁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정 파괴 등이 클수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미국-이라크 전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전과 장기전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단기전은 1-2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며, 장기전은 전쟁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시각임
 - 단기전이나 장기전이나는 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공략과 이라크의 저항에 따라 달라질 것임

미국-이라크 전의 경제적 영향

□ 세계경제의 영향

-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장기전일 경우는 유가가 상승하며 달러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함
 - 단기전일 경우는 유가가 25달러를 유지할 것이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달러화도 소폭 강세를 유지할 전망임에 비해, 장기전일 경우 유가가 37달러 내외까지 상승하고 달러화도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됨

[표] 전쟁향방에 따른 유가 및 엔-달러 환율

전쟁 기간	단기전(1-2개월)	장기전(3개월 이상)
유가(두바이산)	25달러 내외	37달러 내외
엔/달러환율	106 내외	100 이하

- 특히, 전쟁의 장기화는 가뜩이나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경제는 물가상승 하의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국제유가는 고유가를 지속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 코스트를 상승시켜 기업수익을 악화시킬 것임은 물론,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침체를 유발시킬 것임
- 유가는 미국-이라크전 발발로 인해 전쟁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2003년 3월 13일)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기대에 의해 전쟁전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유가는 23.6달러를 저점으로 소폭 반등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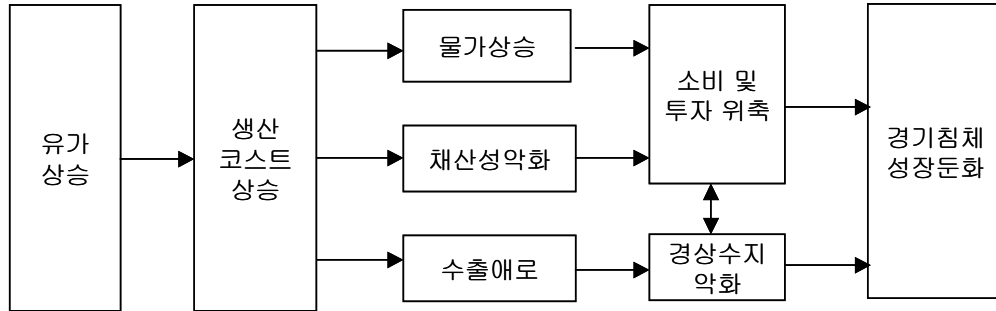
자료: 코리아PDS(www.koreapds.com)

[그림] 미국-이라크 전쟁과 유가의 향방

- IMF는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상승할 경우, 세계 경제의 주도국인 미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이 0.4% 포인트, 0.3% 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유로 등의 선진국은 0.3%, 아시아 0.4%, 라틴아메리카 0.1%의 성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달러화의 경우, 단기전의 경우는 소폭 강세가 예상되나 장기전이 될 경우는 그렇지 못할 전망
 -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에 더해 장기전은 막대한 전쟁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임
 - 단기전은 700-10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예상되지만, 장기전이 될 경우 2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세계경제에 부담

□ 한국 및 서울경제의 영향

- 이라크전이 단기전이 되면 유가하락,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및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지만, 장기전이 되면 유가인상,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국내 산업 및 경제가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장기전이 되면 국내산업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우리처럼 원유 수입의존도 및 석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황에서는 유가상승이 국내경제 및 서울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클 것임
 - 우리나라의 하루평균 석유소비량은 223만 배럴로 아시아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은 한국의 32-35%), 세계에서 석유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임
- 유가가 10% 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0.1%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 하락할 것임
 - 또,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산업 전체의 생산비는 0.26% 상승하며, 이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고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게 될 것임
- 이것은 현재의 내수(국내 민간소비 및 투자) 둔화를 더욱 부추기고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시켜 경기위축 및 성장둔화를 초래할 소지가 많음
 - 장기전의 경우 민간소비를 1.5% 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며, 설비투자도 위축될 것임. 또 상품수지도 유가상승으로 2003년은 전년도에 비해 27.1억달러, 2004년은 63.3억달러가 악화될 것임
 - 200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할 것이며 특히 투자위축과 민간소비침체가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미국-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와 한국경제

- 가계부문은 신용경색을, 기업부문은 채산성악화 및 유동성 애로, 공공부
 문은 공공요금인상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
- 대출이 과도한 가계부문의 신용경색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위축 및 물류비 상승 등 수출애로로 한계기
 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중시설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상승에 대한 압박이 예상됨

	물류비	수출차질
戰後의 변화	사우디-한국간 해상운임의 경우 20피터 컨테이너(PET)기준으로 전쟁전 1,300달러에서 1,500달러로 20% 급등	2003년 3월 24일 현재 385건, 5천 5백4만 1천달러에 이룸 (산자부)

미국-이라크 전에 대한 대응

□ 중앙정부의 대응

-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경제의 불안정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유가안정책을 강구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주행세 인하나 비축유 및 석유안정기금 등의 방출을 통
 해 국내 유가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축유 확대, 원유수입국

다변화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모색함

- 유가상승과 심리적 불안으로 위축된 내수(소비 및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함
 -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 민간 소비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 필요하며,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등이 필요함
- 대외 의존성 경제 체질의 개선 및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추진함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유가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는 방안 모색, 기업·가계·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방안을 마련함

□ 서울시의 대응

- 경제 대책은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서울시 실·국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면서 대응함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
 - 반상회, 시정 홍보물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전기, 기름 등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
 -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네온사인, 간판 등은 물론이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홍보함
 - 서울시 승용차 통행 분담율이 22%임을 감안하여 이라크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10부제 등의 단계적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민의 협조를 구함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유발될 것에 대비하여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대중교통요금 추가인상을 억제함
 - 대중시설의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대중시설 업소에 대한 지방세 등의 감면 조치를 검토함
-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함
- 유가에 민감한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심리 위축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함
 - 통관애로, 물류비 상승, 전쟁으로 인한 수출애로에 직면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물류비 저감방안 마련 및 수출 다변화를 모색함
 -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의 신속적 집행 및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불가피하게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와 함께 산업동향 점검반을 가동함과 동시에 실업자가 발생하면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등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함
 - 실업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김현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